

부록 민생경제 현장점검 포럼

민생경제 현장점검 포럼 『마곡지구의 산업과 정책과제』

목적

-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발표와 이해당사자 간 토론을 거쳐 서울의 민생현장 의견을 수렴하고,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

일시 및 장소

- 일시: 2019년 4월 25일 15시
- 장소: 마곡 FITI시험연구원 1층 세미나실

발표주제 및 토론자

- 발표
 - ‘마곡 R&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 전략’(이재훈 SBA 신성장기획팀 팀장)
 - ‘빅데이터로 본 마곡의 현재’(김영룡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)
- 토론자
 - 소달영 LG사이언스파크 책임, 장수영 로보티즈 이사, 신창호 서울시립대 교수,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등



[부록 그림 1] 마곡지구 민생경제 현장점검 포럼

발표 1: 마곡 R&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 전략

- 마곡단지는 산업·업무·주거를 갖춘 자족적 클러스터로 변모
 - 마곡 클러스터는 총면적 366만㎡로, 산업단지(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) 112만㎡, 주거용지 59만㎡, 업무 및 상업용지 39만㎡, 서울식물원 50㎡, 기타 106만㎡로 구성된 산업·주거·업무·자연이 어우러진 자급자족의 산업도시
 - 산업단지에는 첨단산업(연구개발업, IT, BT, GT, NT)을 유치하고 연구면적 비율이 40% 이상인 기업이 입주
- 마곡지구 개발로 서남권 발전
 - 2006년에서 2017년 사이 서울시 인구는 2.2% 감소하였지만, 마곡지구 인근 가양동, 발산동, 우장산동, 방화동 인구는 22.5% 증가
 - 136개 입주확정기업 사업계획서 기준 일자리 6만5천 개, 투자금액 7조 6천억 원 규모
- 마곡지구에 대한 공공 역할을 초기 기반조성 및 토지분양에서 융복합 산업단지에 맞는 역할로 전환할 필요
 - 토지분양이나 기반조성공사 등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서 기업지원 등의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으로 변화시켜 4차 산업혁명 및 R&D 시대에 대비
 - 분양 위주 토지공급에 따른 대기업 편중을 해결하고 기업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, 여전히 중소기업에게는 진입장벽 존재
- 마곡 R&D 혁신거점 4대 추진전략
 - 현장밀착형 전문 관리기관 운영 및 M밸리 포럼을 통한 기업지원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기업중심의 성장 지원체제로 역할 전환
 - 토지공급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다양한 기업, 기관 입주 유도, 기업 연구공간 제공 및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센터 건립, 산·학·연 협력을 위한 M-융합캠퍼스 건립, 융·복합 지원을 위한 R&D 레지던스 운영 등 혁신아이디어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
 - 지속가능한 기업지원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및 정부협업을 통한 공공연구소 유치 협의 등 자체 성장동력 마련
 - 비강남권 최대의 MICE 복합단지 조성, 자연과 문화가 있는 휴식공간 조성, 일과 놀이의 조화를 위한 문화시설 건립 등 문화·산업·자연이 어우러진 혁신환경 조성
- 향후 추진계획
 -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출범, 기금 관련 SH공사 조례 개정, 스페이스K 서울(코오롱미술관) 착공, 공공지원센터 착공, MICE 복합단지 민간사업자 공모, 공공 R&D 센터 설계 공모, 마곡광장 준공 등

발표 2: 빅데이터로 본 마곡의 현재

- 산업혁명의 변화
 -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집적은 원료, 시장, 운송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짐
 -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집적은 지식, 기술, 혁신에 따라 교외의 신산업지구, 혁신 클러스터 중심
 -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집적은 창업 생태계, 도시 어메니티에 따라 도심의 혁신지구 (innovative districts) 중심

- 혁신지구는 R&D와 창업이 도시 내에서 결합하는 모형
 - 앵커기관, 스타트업, 기업 인큐베이터, 액셀러레이터 등이 서로 연결되는 장소
 - 혁신지구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지표는 경제적 자산, 물리적 자산, 네트워크 자산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음. 경제적 자산은 혁신을 추동하고 지원하는 기업, 기관, 시설 등이고, 물리적 자산은 접근성 및 연결성 증진을 통해 혁신에 이바지하는 요소이며, 네트워크 자산은 개인 및 기업 간 아이디어 교환을 촉진하는 요소
 - 경제적 자산에는 기술업종 종사자 수, 창업지원시설 등이, 물리적 자산에는 대중교통(버스+지하철) 승하차 수, 오피스 연면적, 공원 면적, 13시 기준 생활인구, 와이파이 핫스팟 등이, 네트워크 자산에는 커피숍, 문화시설 등이 포함

- 서울시 6대 산업거점의 혁신지구 자산
 - G밸리와 DMC는 경제적, 물리적, 네트워크 자산이 고르게 우수하지만 혁신지구 내 앵커가 부족하여, 혁신지구와 인접한 대학과의 연계가 필요
 - 마곡 M밸리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혁신지구 자산의 성장 및 축적이 기대되는 곳으로, 앵커에서는 G밸리, DMC의 선례를 참고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
 - 양재 R&CD 혁신허브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물리적, 네트워크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여 경제적 자산을 끌어들이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
 - 홍릉과 마포는 모든 혁신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앵커기관을 중심으로 한 혁신지구 전략 필요

- 마곡지구의 목표
 - 마곡지구는 분양이나 임대사업이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, 이후 어떤 기업들이 정착하고 새로 유입될 것인가를 고려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
 - 또한 주변 대학 및 병원을 활용한 앵커시설과의 연계로, 고립된 산업단지가 되지 않아야 함
 - 그렇게 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이자 살기 좋은 지역, 일하기 좋은 지역, 놀기 좋은 지역이 될 것

토론 정리 및 전문가 코멘트

- 마곡은 아직 여러 기본시설이 부족하지만 개선 중임
 - 가산동은 중소기업이 많아 여러 지원시설과 은행, 센터 등이 풍부해 생활에 큰 불편이 없었지만 마곡은 아직까지 시설이 부족
 - 거리상으로 크게 떨어진 것은 없지만 거주지가 경기 쪽인 사람들에게는 이전이 큰 고민이고, 혼자 사는 신입 직원들은 근처 원룸에 많이 들어갔는데 1년 새 월세가 너무 많이 오름
 - 다른 여러 복지는 좋긴 한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거주 지원이 되어야 할 것
- 2014년부터 마곡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기반시설에 어느 정도 적응
 - 공항이 가깝고 3개 노선의 전철이 뚫려있어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, 지역적으로는 서울시 중심에서 벗어난 위치에 있어 출퇴근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통근버스 운행
 - 그러나 출퇴근 시간에 차가 너무 몰리고,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실정이라 이런 사소한 부분의 인프라도 필요
 - 또한 거주 비용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 근무하는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행복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사업을 고려하였으면 함
- DMC나 판교, 마곡 모두 산업단지나 산업거점만 만드는 사업은 아님
 - 판교나 DMC는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었고, 마곡도 전체 중에서 1/3이 주택, 1/3이 산업단지, 1/3이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, 3개 단지 모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음
 - 사업방식의 문제로, 일하는 사람과 거주가 고려되지 않고 개발비용을 맞추는 쪽이 우선시되다 보니 반복되는 문제
 - 입지로서 훌륭한 곳은 아니지만 어떻게 개발해야 더 좋아질지를 고민하고 있음
 - 레지던스, 원룸, 행복주택, 기숙사 등도 향후 남아있는 자리에 어떻게 넣을지 고민 중
- 토지분양 시 대기업에 많이 분양되었지만, 사업체 수는 중소기업이 많은 마곡
 - 기업의 구성으로 볼 때 다양성이 중요한데,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이 많이 들어와 다양성은 확보될 것
 - 대학이나 공동연구소를 유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님. 유치해놓더라도 단지 내의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업이 될지 염려
 - 기존의 다른 비슷한 단지들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, 바로 옆에 있지 않아도 협업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음
- 마곡 내 기업과 마곡에 들어오고 싶은 외부 연구원들의 요구를 잘 섞는 것이 중요
 - 혁신지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어떻게 매칭을 해야 할 것인지가 SBA의 역할이라고 생각

- 단지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
 - 왜 마곡단지 내에서만 상생을 해야 하는지, 이런 제한을 걸어놓는 게 맞는지를 생각해봐야 함
 -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함께 일할 때 유출에 대한 걱정과 나중에 이 기업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중소기업의 기술만 빼돌렸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 민감함. 그런 합이 맞는 기업을 찾기도 어렵고, 마곡 내에 있기는 더 어려움
 - 마곡에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지을 정도면 중소기업은 아니고 중견기업 수준이라고 생각
 - LG는 마곡의 관리 기본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스타트업에 입주시켜 육성하려고 계획 중인데, 육성 장소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어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 중
 - 공간을 제공해주면서 회계, 마케팅에 관한 컨설팅 등 대기업이 줄 수 있는 지원들을 생각 중

- 대기업과 대학의 상생
 - 기업과 학교가 같은 지역 내에 붙어있어야 하는지는 의문임. 대전의 카이스트나 포항의 포스텍과도 협업 중인데 지역적인 거리가 큰 문제는 아님
 - 마곡에 들어오는 대학이나 대학원들의 연구가 기업과 맞는다는 보장도 없어 회의적

- 협업을 하는 기업이나 학교들이 같은 지역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
 - 로봇티즈 같은 경우 LG전자의 투자를 받고 공동개발도 하고 있는데, 개발은 부분적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어 LG로봇 담당자들이 마곡에 있지 않아도 회의시간을 정해 만나서 얘기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는 것이 필수적이지는 않음
 - 그러나 꼭 필요하진 않지만 가까이 있다면 다른 부분의 시너지는 더 날 것이라고 생각



[부록 그림 2] 마곡지구 민생경제 현장점검 포럼